

## 확답을 듣지 못한, 그렇지만 개입이 가능한 이야기 조각들

김우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최근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다큐멘터리적인 요소와 허구적인 요소를 뒤섞어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허구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오브제나 텍스트 문서들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이다. 장보윤은 일견 이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듯 보이지만, 작위적인 조작을 하거나 이야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사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은 언뜻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진의 시점 텍스트의 시점, 시간과 공간이 교묘하게 뒤엉켜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시간과의 만남과 발견, 그를 바탕으로 한 관찰과 유추, 글쓰기를 통해 픽션도 논픽션도 아닌 그 어딘가를 향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가는 여기저기 시점을 이동하기도 하고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발견한 사진을 단서로 퍼즐 맞추기를 시작한다. 사진 속 인물과 그가 살았을 시간과 장소들을 고스란히 유추하고 따라가 관찰하고 그 속의 인물과 장소에 집중한다. 작가는 거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가미해 내러티브를 만들어 덧붙이고 관람객들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한다.

장보윤의 작품에서 주목해 볼 것은 작가가 사진과 그에 쓰인 메모들을 단서로 실제 사진이 찍힌 장소를 추정하여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 과정이 장보윤을 여타의 현실과 허구를 조합한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진 속 장소로 여행을 떠나며 사진 속 인물들의 시점 그 자체에 주목하여 들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작가가 인물의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된다. 이 지점에서 사진 속 장소와 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장소로 찾아가 유추하며 개입하는 작가의 행동은 ‘이야기’라는 기제로 작품을 이끌게 된다. 그것이 어떤 실재를 넘어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또한 작가의 이 같은 시점 개입은 관람객이 사진 속 시간과 인물에 자신을 대입하게 되는 동기를 마련한다.

그의 작품을 처음 본 브레인팩토리 전시에는 슬라이드 필름과 빈티지사진처럼 옛날 사진, 그것을 둘러싼 편지 등의 문서와 그 속의 텍스트들이 어두운 조명아래 여기저기 설치되어있었다. 마치 아카이브처럼 건조해 보이는 사진들과 편지조각들은 K라는 가상인물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형성하였다.

〈기억의서 : K의 슬라이드〉는 ‘일본’이라는 장소와 ‘80년대(추정)’라는 과거의 시간적 배경과 ‘여행’이라는 특정 행위를 사진으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그 인물은 실체가 사라져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다. 사진이 찍힐 시간, 존재 했었지만 지금 이 사진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의 존재는 확인할 길 없는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실재 개인사는 삭제되어 알 길도 실체도 없이, 개인의 이름이 지워진 채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사진들... 개인사를 알 수 없고 개인적 용도가 폐기된 알 수 없는 사진들에 가상의 인물을 겹쳐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허구라기 보다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장소적 특수성을 유추해 사진을 읽어가는 작업에 가까우며, 그것에 작가의 상상력을 약간 덧붙여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간다.

다음 시리즈인 〈밤에 익숙해지며〉에서는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경험하여 얻게 된 사진앨범을 접하며 한 가족으로서 여성의 개인사를 관찰하게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가족사로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기록한 방대한 앨범이었다. 이 시리즈에서는 개인의 성장사를 포함한 사적인 기록들이기에 조금 더 사적인 감정의 조각들과 심리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여자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앨범의 성격상 사진을 단서삼아 주인공의 심리상황과 감정들 속에 작가는 더 깊이 개입하게 된다.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사를 유추하며 개인의 성장선을 따라가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사건들과 그것을 둘러싼 감정들을 경험하게 한다. 많은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는 이 시리즈에서 작가는 여자의 일생에 대해 생각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덕원갤러리에서 열린〈레트로〉전에서 선보인 초콜릿을 이용한 설치작업 역시 이 앨범들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작가의 작업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다양한 확장을 발견케 하였다. 녹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것을 고정시키고 기념하려는 사진의 속성이 만나는 묘한 지점을 표상하며 가능성을 보게 하였다.

가장 최근에 선보인 〈천년고도〉 시리즈에서 작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작업을 확장하였다. 우선, ‘경주’라는 공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관람객들이 한두 번씩 경험해 보았던 장소라는 점에서 경주가 지니는 보편적인 장소적 기능과 향수들이 뒤섞여서 관람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입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현재에 소환된 과거의 사진, 그리고 작가가 그 장소를 찾아가 자신의 시각으로 담은 사진들, 몇 가지 메모들은 작가가 덧붙인 오브제, 텍스트들과 만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모호한 세계로 들어온다. 여기서 시점과 사진 속 인물의 시점이 뒤섞이게 된다. 일기 같은 텍스트는 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을 오가며, 시간적 차이와 시점의 차이를 드러내며 미끄러진다. 또한 이미지 역시 경주를 배경으로 한 신혼부부의 사진과 수학여행 사진, 그리고 황량한 경주의 풍경과 건물 사진들이 뒤섞여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부유하게 된다. 경주 시리즈에서 택시운전사의 인터뷰 영상은 더 적극적인 현재의 경주를 상세히 묘사하며 ‘과거’에 멈춘 경주의 시간성을 강화시킨다. 결국 경주라는 장소가 가진 사진과도 비슷한

과거의 영화를 가진, 그리고 그 영화를 붙잡고 싶지만 쇠락해 가는 잊혀진 기억 속 장소라는 특성은 '존재증명'이라는 속성을 지닌 사진 매체의 특성 그 자체를 작업의 방식으로 삼고, 그 속성에 적극 개입해 사진이 찍혔던 시간과 장소로 떠나보는 작가의 여행과정과 겹쳐져 모호하고 아련한 감성을 자극한다. 이것은 반복 재생되는 천년고도 뮤직비디오 영상에서 절정에 달하며 '이미지' 속에 갇힌 경주라는 장소성을 드러낸다.

작가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사진이 지닌 존재와 부재의 증명, '한 때 거기 있었음'을 증명하는 속성을 작업의 근간으로 삼는다. 작업 프로세스 그 자체로 삼아 과거의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한순간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복원되고 호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작업 프로세스로 삼아, 뒤섞어 놓는다. 그러면 명백한 사실로서의 증명으로서의 사진은 모호한 이미지가 되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텍스트와 오브제들과 뒤섞여 더 모호해 진다. 이 모호함은 혼란을 주는 모호함이라기보다는 개입이 가능한 모호함으로, 관람객의 개입을 이끄는 도구가 된다. 작가 자신이 사진에 개입해 새로운 세계와 시공간으로 호출하고 작가가 그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통로의 접근이 가능한 텍스트로 작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라져갈 존재인 인간을 영원히 고정시키고 기억시키고 싶은 기억과 망각의 딜레마를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존재의 질서를 흐트러놓아 텍스트와 오브제가 덧붙여진 사진들은 느슨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게 되고 작품은 다양한 시공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